

사직단 해설 매뉴얼

사직단1기 성연택

<안내판 앞> 3분

안녕하세요? 우리문화숨결 궁궐길라잡이 성연택 해설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있는 이곳은 조선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들 중의 하나인 사직단입니다. 사직단을 방문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어떠한 느낌? 이유로 방문 하셨나요?

- 계절별 날씨, 안부 인사 또는 사직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

지금부터 사직단에 대한 다양한 역사와 여러 가지 의문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해설 시간과 안내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설시간은 대략 40분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자유관람이며 사직단 정문을 중심으로 오른쪽 방향부터 시작하여 전 구역을 이동하며 진행하겠습니다.

해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직단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제사”, “조선”, 마지막으로 “사직의 미래”



잠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사직단 정문 뒤>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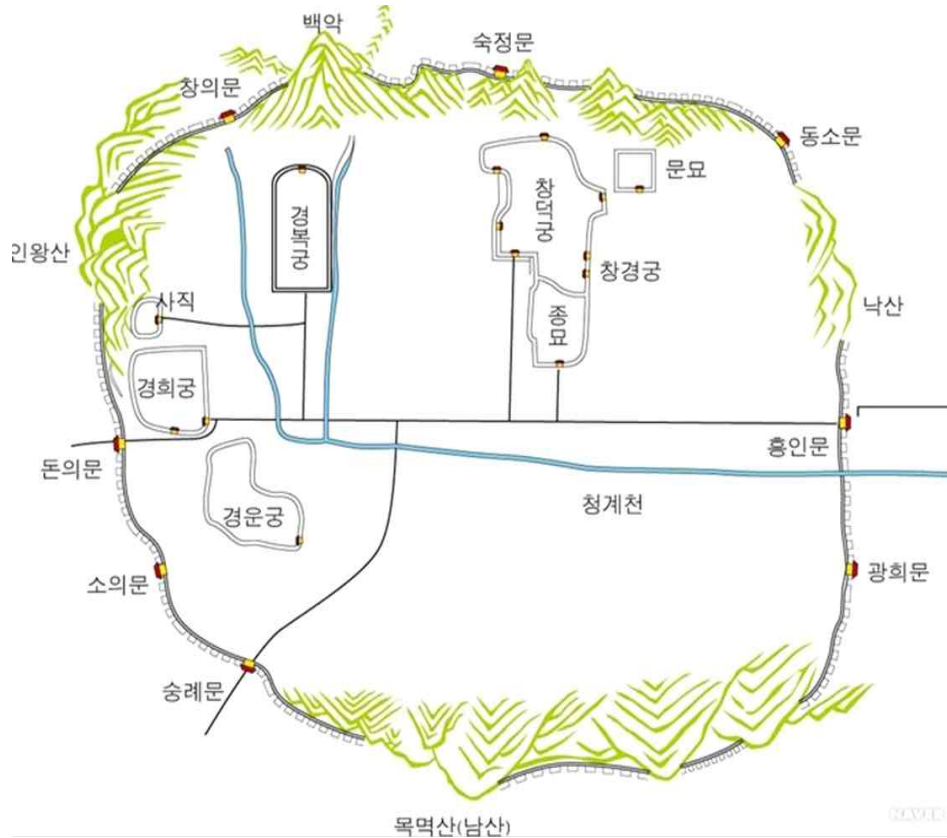
우선 사진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현재 사직단의 정문입니다. 다음 사진이 과거의 사직단 정문 모습이구요.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삼문형식의 상부를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나시죠? 과거의 정문은 홍살문의 양식을 가진 것에 비해 현재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현판의 경우도 존재 유무로서 비교가 되시죠? 사직단은 사적 제 121호로 지정되었으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문입니다. 보물177호로서 지정된 이유는 정문 앞쪽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나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은 임진왜란 때 다시 세워진 것인데 기둥 위의 공포 형식이 학술적으로 주목되기 때문이죠.

초익공이면서 출목이 있고 익공의 형상이나 결구 방식이 주심포식에 가까워서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문은 원래 문 왼쪽과 오른쪽으로 담이 있었고 위치도 제자리에서 1962년 사직로 개설을 이유로 14m 뒤로 후퇴하여 이동하였고, 이후 인도 확장공사로 10m 서쪽방향으로 이동하여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 이번에는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직단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방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방향의 산은 인왕산입니다. 인왕산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함을 알 수 있겠죠? 이제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보이는 산이 경복궁의 주산, 진산으로 불리는 북악산입니다. 우리가 서있는 위치가 어느 방향인지를 파악하시면 더욱더 흥미롭게 사직단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직단 계단 위> 5분

첫 번째 키워드 제사입니다.

과거부터 제사의 의미를 가진 의식은 매우 오래전부터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다만 제사를 올리는 상대가 누구인가? 이런 구분이 있어야 할 것이며 개인, 마을, 지역, 최종적으로 국가가 주최하는 격이 다르게 구분 지어졌습니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이기에 조선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조선의 왕실을 세우며 사직단은 태조가 한양에 수도를 정하고 궁궐과 종묘를 지을 때 함께 세운 것으로 토지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에게 제사를 지냈던 곳입니다.

농경사회의 가장 핵심인 토지와 곡식을 중요시함으로써 그 당시 조선시대의 사회가 어떠한 부분을 중요시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국사단은 동쪽에, 곡식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국직단은 서쪽에 배치하였으며, 신좌는 각각 북쪽에 모셨습니다.

종묘는 한양에만 위치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사직은 지방에도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점으로 보통성의 서쪽에 자리 잡았고 사와 직의 단을 하나로 만들고 석주와 배위가 없었으며 납일의 제사도 없었습니다. 종묘는 수도 한양에만 존재함에 비해 사직단은 지방에도 배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정의는 없지만 종묘의 경우 유교사상의 효를 앞세운 왕조의 정통성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직단은 왕실보다는 조선시대 모든 백성의 생활과 관련된 신을 기리기 위함이니 자연스럽게 모든 지방 군현에 설치하여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사직단의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종묘와 사직은 서로 함께 공존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주례'를 보면 국가를 건설하면서 궁궐을 기준으로 좌측엔 종묘를 우측엔 사직을 세우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즉 종묘를 통해 조선왕실의 정통성과 효를 표현한다면 사직단의 경우 백성의 재앙을 막고 풍작을 기원하는데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직단이 더욱 친근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종묘를 조상을 경배하는 시간의 연속성 이라면 사직은 땅과 곡식에 제사를 지내는 공간의 연속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종묘가 가치의 연속성이 유지되었던 것에 반해 사직 고려,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현재에 거치면서 공간의 연속성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다시 되살리는 길이 사직의 상징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는 조선보다 사직이 가진 비중이 크지 않았는데, 이유는 고려가 황제국 체제를 표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황제는 하늘과 땅에 제사를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고 이에 따라 하늘에 대한 환구단제를 종묘제와 함께 가장 큰 제사로 여겼습니다. 즉 조선에서 사직제가 가지는 위상을 고려에서는 환구단제가 차지하고 있던 것이죠.

<사직단 내부 입장> 10분

사직단의 기본 형태는 국조오례의에 잘 설명 되어있습니다. 사단과 직단을 설치하였는데 동쪽의 단에는 국사신, 서쪽의 단에는 국직신을 모셨으며, 단에는 주척(周尺)으로 높이 2.5자, 너비 1자의 석주(石柱)를 각기 세워 후토씨(后土氏)와 후직씨(后稷氏)를 배향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척이란 길이를 재는 단위중의 하나입니다. 사직단에는 주척과 영조척, 두가지의 단위가 적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여러 개의 길이를 재는 단위를 사용하였는데 황종척, 주척, 조례기척, 포백척, 영조척 등이 있었습니다.

황종척의 경우는 악기의 제조와 음률을 맞추는 단위였으며 주척은 주로 측우기등의 기구를 제작하거나 사당의 신주를 만들 때 사용하며 그밖에 도로의 거리수, 묘지의 영역, 훈련관 교정의 거리수, 활터의 거리수를 잴 때, 그리고 토지를 재거나 시체를 검시(檢屍)할 때도 사용하였다.

주척은 원래 주나라 때 거리, 면적 등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자로 삼국시대에 당나라로부터 들어와 고려, 조선시대까지 사용하였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각종의 자를 m법으로 환산해보면 그 평균 수치가 다음과 같다. 황종척(黃鐘尺)은 34cm, 주척(周尺)은 20cm, 영조척(營造尺)은 30cm, 조례기척(造禮器尺)은 28cm, 포백척(布帛尺)은 46cm이다.

-출처: 한국의 도량형(국립민속박물관,1907)



여기에 추가로 사직단에는 3가지의 사상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원지방, 천지인, 오방색의 개념인데요 사직단이 네모난 형태는 천원지방이라는 조선시대에 유지되었던 동아시아 우주론 사상입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난 모양임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투영시키고 있었죠. 이런 예로 종묘에 가시면 볼 수 있는 연못과 같은 개념의 공간을 “지당”이라고 합니다. 또한 땅이 있기에 인간이 서있을 수 있으며 곡식이 있기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원론적인 생각을 더 확장시켜 땅은 워낙 광대하므로 이것을 다 경배할 수 없어 단을 쌓았는데 이런 사직단의 단을 천지인 사상을 반영하여 3단의 높이를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상징인 사단(社壇) 위를 덮고 있는 흙은 일반적인 흙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안에는 오방색에 따라서 청토(동), 백토(서), 적토(남), 현토(북) 그리고 황제를 상징하는 황토(중앙)로 다섯 구역을 나눠 채워져 있습니다.

사단이 국토(흙)의 상징이니 흙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매우 합당한 이치이지만 식량(곡식)의 상징인 직단에서는 흙 위에 곡식을 심던가 곡식을 상징하는 풀이라도 자라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헌의 정확한 기록은 없으며 사건으로 결국 흙이 있어야 곡식이 자라니 흙이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땅이 없으면 살 곳이 없고 곡식이 없으면 길러질 수가 없겠죠? 따라서 나라를 세우면 토지신과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단을 세워 백성을 살게하고 길러주는 공덕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사직단 제례는 보편적인 제사였습니다. 하늘의 상제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환구단 제례는 천자만 거행할 수 있지만 사직에 모시는 신은 국가의 위상에 따라 태사, 국사, 치사 등으로 구분되었고 국가 내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제례에 차이를 두어 중앙 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질서를 반영했습니다. 국조오례의의 기록으로도 국가 제사의 서열은 사직, 종묘, 영녕전 순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선조는 신주를 개성의 목청전으로 옮겨서 보관했습니다. 1594년 사직단을 재건하고 병자호란 때 인조는 사직단의 신주를 강화도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신주가 훼손되자 이를 다시 제작하여 사직단으로 모시게 되었죠.

사직대제에는 기곡, 춘향, 추향, 납향이라는 네 번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기곡제는 정월 첫 번째 신일, 춘향제는 2월 첫 번째 무일, 추향은 8월 첫 번째 무일, 납향은 12월 납일에 거행했습니다.

사직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를 처음 거행한 것은 숙종대입니다. 기곡제는 원래 상제에게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였습니다. 조선은 제후국이라는 명분 때문에 세조 이후 제천례를 중단했고 기곡제도 함께 폐지하였습니다. 숙종이 기곡제를 다시 거행한 것은 오랫동안 계속된 흉년과 기근을 극복하고 민생의 안정을 기원하기 위함입니다. 영조는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사직단의 기곡제를 대사로 승격시켰으며 정조는 모든 기곡제를 대사로 확정했습니다. 이 당시 사직서의궐을 편찬한 것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죠.

사직단 제례에는 소사도 있었는데 기우제, 기청제(비가 그치기를 기원), 기설제, 해괴제(괴이한 일이 있을 때), 위안제(귀신을 위로하는), 이안제(사직단 신위를 이동시킬 때), 중요한 일을 알리는 고유제와 지방에서 지방관이 거행하는 사직단 제례도 소사에 속했습니다.

1897년 대한제국이 건설되면서 고종 황제는 사직단의 신위를 국사와 국직에서 태사와 태직으로 바꾸고 대한제국이 탄생했다는 고유제를 사직단에서 거행했습니다. 이 해에 환구단이 설치되면서 기곡제는 환구단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곡제는 원래 토지신이나 농업의 신에게 올리는 제사가 아닌 하늘의 상제에게 올렸던 제사기 때문에 국가 제사의 서열도 환구단, 종묘, 영녕전, 사직의 순서로 조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대한예전에 남겨져있습니다.

일제 침략시기에는 매년 네 번씩 거행하던 제례가 두 번으로 줄고 선농단과 선잠단의 제례가 사직단에 합쳐지게 됩니다. 결국 1910년 강제병합으로 사직단 제례를 폐지되었습니다. 현재의 사직대제는 1988년 9월21일에 처음 복원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종로구의 지원을 받아 종묘제례 예능보유자인 이은표 님에 의해 고증이 이뤄졌습니다. 2000년 10월 중요무형 문화재 제111호로 지정되어 끊어졌던 제례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직단의 시대적 흐름-

두 번째 키워드로서 조선을 말씀드렸었죠? 조선시대의 큰 틀에서 사직단은 분명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분기점은 국초 사직단의 형태가 정착된 시점인 세종대, 국조오례의가 편찬되던 성종대, 사직서의궐이 편찬된 정조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직은 두 단이 따로 세워져 있고, 국조오례의와 사직서의궐 등 조선시대 사직관련 편찬서들에서도 이 두 단은 모두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기록을 살펴보면

1. 대사신위앞에 나아가서 남향하고 서게 한다.---(중략)---전하를 인도하여 후토씨 신위 앞에 나아가서 서향하여 서게 하고, 규를 꽃으시기를 계청한다...(중략)...예의사가 전하를 인도하여 대직신위 앞에 나아가고, 다음에 후직씨 신위 앞에 나아가서 상향하고 전폐하기를 모두 대사 후토씨의 의식과 같이 한다..(중략).북계로 내려와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2. 사직단은 남쪽에 위치하여 북쪽을 향하니, 방(方)이 2장 5척이요, 높이가 3척이며, 사방으로 섬돌이 나와 있는데, 각각 3층이다. 방색(方色)의 흙으로써 꾸였으며, 황토로 덮었다.
3. 전 의주에는 사(社)와 직(樓)을 합하여 한 개의 단(뿔)으로 하였는데, 이제는 임자년(1432, 세종 14년)에 두 개의 단을 따로 설치한 뒤에 섭행하던 의주에 의하여 두 개의 단에 승강(升降)하는 절차를 고쳐 기록하였습니다.-세조실록 권1,1년7월23일

1과 2 는 세종실록 오례의 친제사직의주와 세종실록오례의 길례 서례의 사직단 내용 중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국왕이 사단에서 예를 행하고 나서 단을 내려와 다시 직단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에서 각각 사의 신위와 직의 신위에 모두 예를 행한 다음 내려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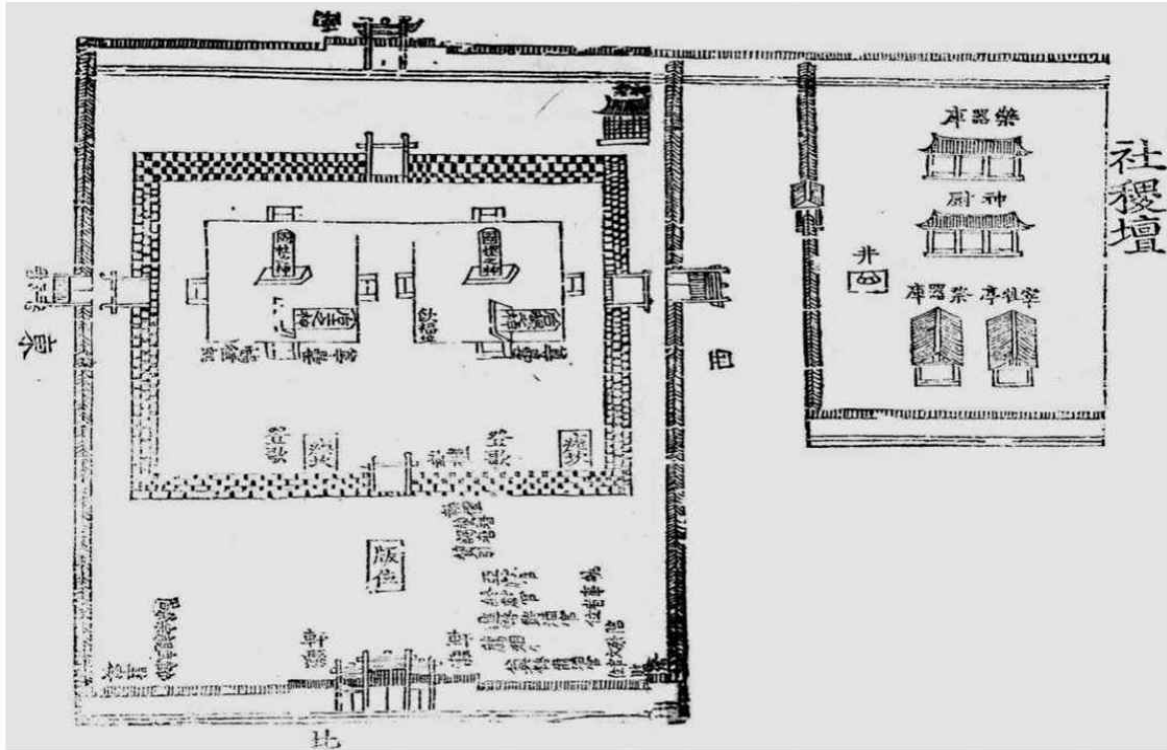
3은 세조대에 사직의주를 논의하는 내용인데 세종14년 단을 분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직단이 하나의 단으로 합쳐져 있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는 점이죠. 이에 대해서는 조선 초기 최초 건립부터 하나의 단으로 되어 있다가 세종대 들어서 별단으로 바뀐 것이다 또는 건국 초에는 별단으로 세워졌다가 이후 어느 시점에 동단으로 세워진 이후 세종대 다시 별단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2가지의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단 안쪽 유 입장> 10분

-조선전기의 사직단-

세종 14년에 별단 체제로 확립된 사직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조형되었고, 또 어떠한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던 것일까요? 비록 세종대 당대의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존하는 국조오례의에 기록된 사직단도설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세종대 이후부터 성종대 국조오례의 편찬 당시까지 사직단의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이 세종대의 제도와 같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사직단도설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그림의 상단부가 북쪽이고 아래가 남쪽으로 설정된 것과 달리 그림의 윗부분이 남쪽으로 그려져 있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직 제사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사직은 땅의 신이어서 음의 신으로 인식되었고 이에 따라 신위가 남면하는 것이 아니라 북면하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위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위해서는 북에서 남을 향해 서야 하는 구도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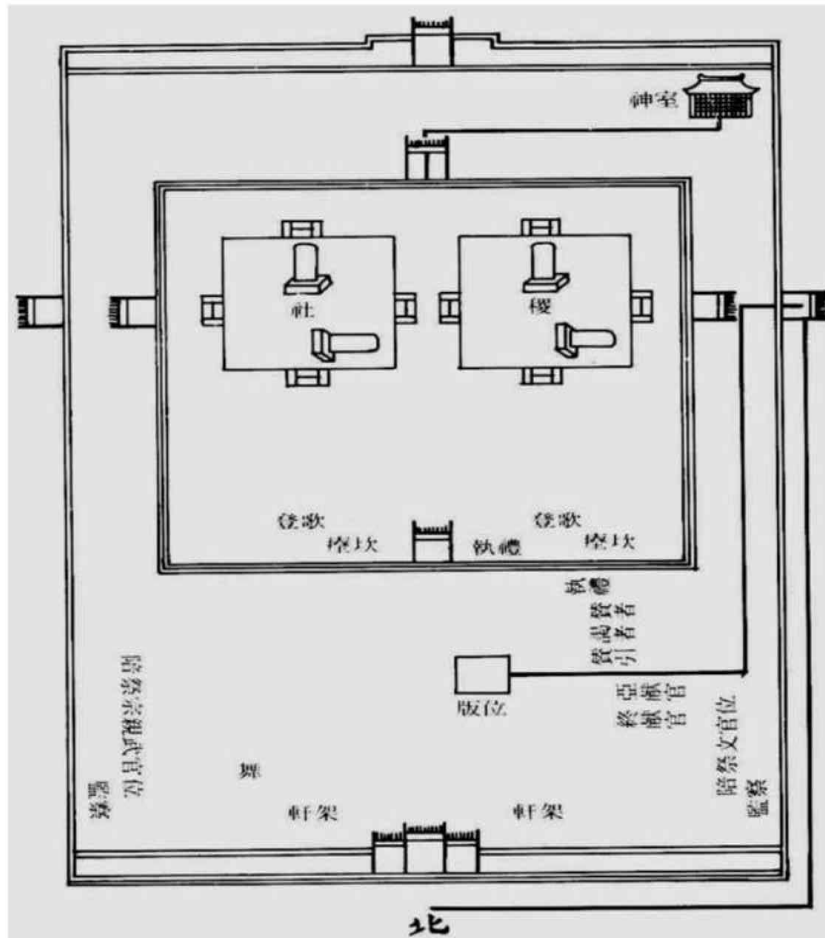
-사직단도설 설명-

위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 전기의 사직단은 크게 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실제 제단이 설치되고 제향이 열리는 좌측 부분 (단유)와 제사를 준비하고 평상시 사직단의 관리에 필요한 건물이 배치된 우측 상단부로 크게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좌측부분을 살펴보면, 경내를 사방으로 담장을 두르고 있는데 이러한 담장을 유라고 부릅니다. 가장 외곽에 한 겹이 설치되었고 단 바로 외곽에 또 한 겹이 설치되었는데 이렇게 유가 두 겹이 된 것을 양유라고 하였습니다.

태종대의 사직단은 유가 한 겹으로만 설치되었던 것 같은데 세종 12년 박연은 관리상의 편의성과 의례 진행상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를 양유로 고칠 것을 건의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세종 14년에는 사직단의 위치를 약간 옮기며 양유로 조영하였던 것입니다.

두 개의 담장을 조영하면서 사직의 의례 공간은 크게 세 영역으로 분리되게 되었는데 가장 안쪽에는 의례 주재자가 의식을 진행하는 단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단 아래부터 안쪽 담장이 위치한 공간이 있으며 세 번째는 첫 담장 바깥부터 외곽의 담장 안쪽에 이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궐에서 행하는 의식의 세 공간, 즉 왕이 있는 건물 안(전내), 건물 바깥의 월대 위쪽(당상), 그리고 월대아래의 전정(당하)와 대응되는 것이었다. 사직에서 양유제를 도입하게 되면서 공간 역시 3개로 구분되었고 이러한 구분은 궐내에서 이루어지는 여타 의식과 공간 분할상의 통일성을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단유도설(정조대)-

국조오례의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 후기의 사직서의궤에는 국왕 동선이 표시되어 있는데 왕은 판위에 나아갈 때 북문을 사용하지 않고 서쪽 문으로 들어와 출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선 전기에도 국왕의 출입은 서문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어지죠.

한편 외곽 유 안쪽 남서쪽 모퉁이에는 신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실은 사직단의 네 신위, 즉 국사신, 국직신, 후토씨, 후직씨의 위판을 모셔두는 곳입니다. 사직신의 위판들은 평소 이곳에 봉안되어 있다가 제사를 지낼 때 제단으로 옮겨졌습니다.

역시 『국조오례의』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조선 후기의 사직서의궤에는 위판의 이동경로가 그려져 있는데 안쪽 유의 남문을 통해 단위로 이동하였습니다. 이 역시 조선전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신실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작은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한편 토지의 신인 사신과 곡식의 신인 직신은 국가의 격에 따라 명칭이 달랐는데 제후국을 표방하는 조선에서는 각각 국사, 국직으로 명칭하였다가 이후 황제국을 표방한 대한제국 시기에 들어 각각 태사, 태직으로 명칭이 격상되었습니다.

본래 단의 구성에는 주척을 사용하는 것이 고례였지만 그를 따를 경우 단이 너무 협소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조선의 사직단 구성에는 영조척이라는 더 큰 척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현재의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변의 길이가 약 7.6m 높이가 약 92센티m에 이르게 됩니다.

또 제사를 진행할 때 신위를 모실 수 있는 신좌를 설치하여 사단과 직단의 주향인 국사, 국직신은 남에서 북을 향하도록 배치하였고 사단의 후토씨와 직단의 후직씨는 각각 서에서 동을 향하도록 배치하였습니다. 또 사단의 경우에는 높이가 2척 5촌에 이르는 석주를 설치하였는데, 이 석주는 등근 끝만 드러내 놓고 나머지는 단의 남쪽 한가운데 묻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나라의 홍무예제에 의거한 것이었다.

사직단의 중심이 되는 단유 외에 여타의 부속건물은 단유의 서쪽 상단에 위치하였는데, 앞의 국조오례의 사직도 우측 상단부의 건물들입니다. 국조오례의 사직도에 악기고, 신주, 재생정, 제기고의 네 건물과 우물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악기고는 사직 제사에서 연주되는 악기들을 보관하는 건물입니다. 신주는 사직 제사에 쓰이는 제수 음식을 장만하는 곳이며 우물은 이러한 음식 장만에 필요한 물을 공급했던 곳으로 보여집니다.

재생정은 사직 제사에서 희생으로 사용되는 소, 양, 돼지를 관리하는 곳이며 제기고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기들을 보관해 두는 곳입니다. 이러한 네 개의 부속건물들 외곽에는 담장을 쳤고 담장의 동쪽에 출입문을 만들어 사직단의 단유와 쉽게 통할 수 있도록 구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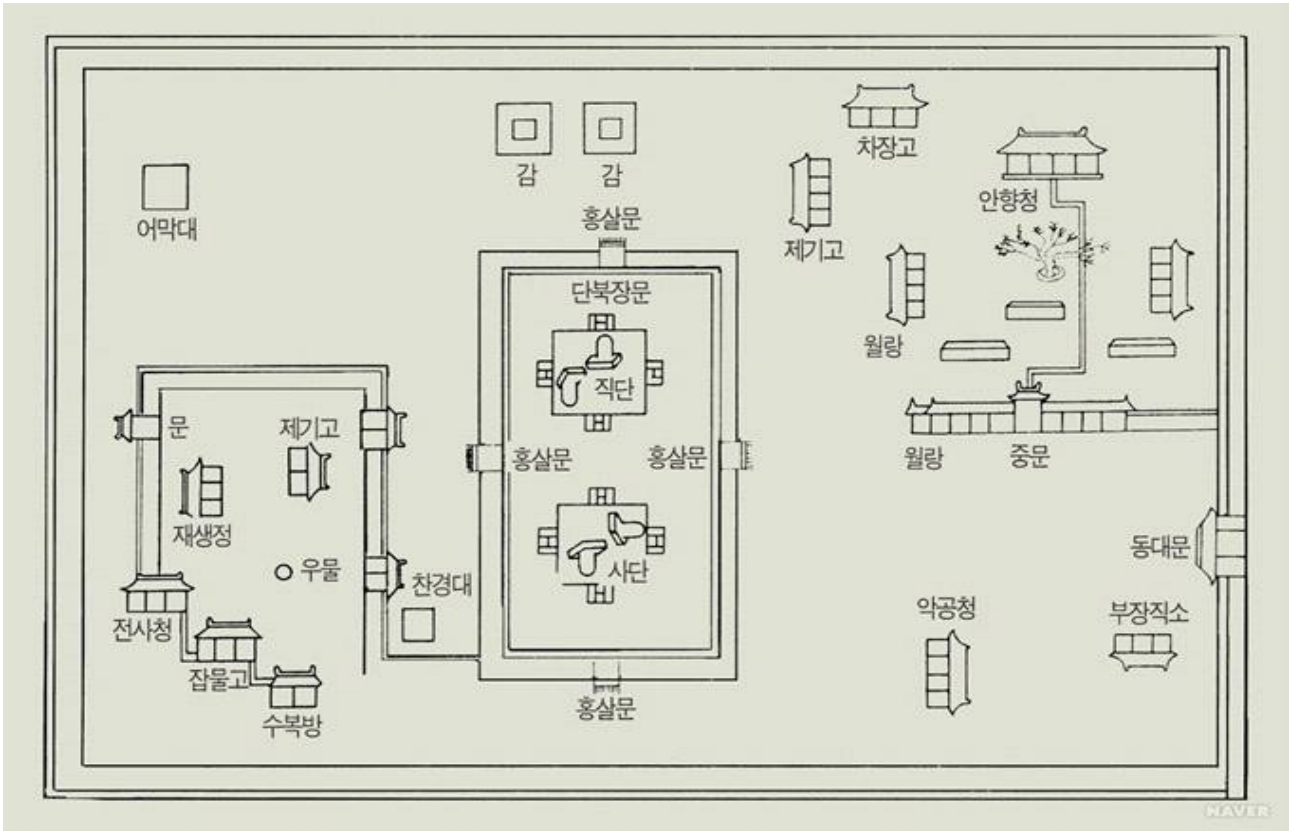
국조오례의에 나온 사직의 모습은 세종대 그 골격이 만들어진 이후 16세기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왜란과 호란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사직단은 상당히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조선 후기에는 사직단의 정비가 이루어 졌는데 숙종-정조대 기간에 이러한 정비가 특히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의 사직단-

조선 후기 정비된 사직단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사직서의궐의 사직단전도 및 단유도설입니다. 사직서의궐은 정조대 편찬된 기록물이며 19세기 사직단 제도 역시 당시에 비해 특별한 변화상이 포착되지 않으므로, 사직서의궐에 반영된 사직의 모습은 대한제국 선포 이전까지 같은 형태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783년 정조의 명으로 제작된 사직서의궐에 수록된 사직서전도와 단유도설에는 당시의 사직단 영역의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유도설은 사단과 직단이 있는 제단 영역만을 표현한 반면, 사직서전도는 제단 영역을 제외한 재실과 부속시설 영역만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두개의 도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직서의궐의 사직서 전도-

사직서전도의 배치양상을 국조오례의의 그림과 비교하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직서 담장 안 동북쪽에 안향청 일곽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안향청은 왕이 제사를 올리기 위해 임시로 거처하던 건물로 사직서의궐 기록을 보면 1694년 숙종대에 지어진 건물로 추정 됩니다. 또한 북주문 바깥으로도 감이 증설되었으며 기존의 제기고 일곽에는 신주와 약기고가 없어지고 다른 시설들이 증축되었습니다.

사직서의궐의 단유도설에는 사직단의 주원 내부가 상세히 그려져 있는데 판위, 신실, 문을 연결하는 신도가 추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앞서 『국조오례의』사직단 도설이 단유와 우측 상단의 부속건물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사직서의궐』에서는 부속 건물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또한 단유와 부속건물을 모두 아우르는 사직단 외곽에 담장이 쳐져 있고 대문까지 그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사직단 단유 외곽에 경내를 모두 아우르는 담장이 조선 전기부터 실재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두 그림에서는 사직의 영역이 조선 전기에 비하여 대폭 확장된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조오례의』사직단도는 그림 아래가 북쪽, 그림 위쪽이 남쪽으로 설정된 반면, 사직서의궐 사직단전도에서는 아래가 남쪽, 그림 위가 북쪽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도 차이점입니다. 다만, 『사직서의궐』에는 단유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유도설이란 그림을 더 수록하고 있는데, 이 단유도설에서는 『국조오례의』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이 북쪽, 위쪽이 남쪽이 되게끔 그려져 있습니다.

신실의 경우는 임진왜란 때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선조대 복구하였다가 숙종대 증축한 것이었습니다. 숙종대 재건 당시 신실은 그전의 크기에 비하여 길이와 넓이를 약 1m씩 넓게 지었는데, 이는 기존의 신실이 좁아 제사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실의 위치는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직서의궐 상에 나타난 사직단의 변화는 부속건물의 수와 위치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 전기의 네 개의 부속건물 외에 상당한 부속 건물이 새로 생기고 그전에 있던 네 개의 부속건물도 위치가 변화하거나 배치상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음이 주목됩니다. 우선 본래 약기고와 신주가 있던 자리에는 전사청과 잡물고, 수복방이 들어서 있는 점입니다.

또 『국조오례의』상에서는 네 개의 부속건물 외곽을 담장을 완벽히 둘러 공간을 차단한데 비하여 『사직서의궐』에 나타난 모습은 전사청과 잡물고, 수복방이 담장과 연결되어 있는데다가 수복방 옆은 담장이 뚫려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국조오례의』의 부속건물의 담장에는 보이지 않던 서편으로의 문이 하나 보이고 동쪽 문의 북쪽으로 터가 들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건물에서 단유로 통하는 문 근처에 찬만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보입니다. 제기고와 재생정은 『국조오례의』그림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제기고의 경우 임진왜란 이후 몇 차례 위치이동이 있다가 영조대에 사직서의궐 상의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부속건물들 중 전사청은 사직제사에 올리는 제수 음식을 준비하는 곳으로 『국조오례의』사직단 도설의 신주와 같은 곳입니다. 이 건물은 숙종 20년 한 차례 중수된 바 있다. 조선전기에는 없던 찬만대는 전사청에서 만든 제사음식을 점검하는 곳이었습니다. 찬만대의 위치가 부속건물에서 단유로 옮겨가는 중간에 만들어진 것은 전사청에서 음식을 만들어 단유로 옮기기 전에 찬만대에서 점검을 거치고 진설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복방은 사직의 잡다한 일을 담당하는 수복들이 거처하는 건물이었는데, 사직에 배속된 수복의 인원은 총 8명이었습니다. 잡물고는 말 그대로 제사와 관련된 잡물들을 저장하기 위한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한편 단유의 동쪽에도 많은 부속건물이 들어섰는데 동북쪽에는 안향청을 위시하여 월랑들이 들어섰고 약기고와 차장고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안향청은 사직 제사에 쓰이는 향과 축을 봉안해두는 곳이었는데, 국왕이 친제를 거행할 때에는 국왕이 머무는 재궁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약기고는 조선 전기에도 설치되었던 건물인데 위치를 이전하여 단유 동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차장고는 사직 제사시에 사용하는 차일(햇볕을 가리기 위한 장막)을 보관하던 장소였다.

본래 『사직서의궐』에 따르면 차장고는 본래 단유 서쪽 부속건물들이 있는 곳에 위치하였는데 영조 25년 안향청 옆으로 이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채로 된 월랑은 쓰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로 보이는데 필요에 따라 활용되었을 조선전기의 사직도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부장직소는 사직의 수문을 담당하는 부장들이 숙직하는 곳인데 처음 건립될 숙종 28년에는 현재 『사직서의궐』상의 위치와는 달리 사직 정문의 반대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조 18년인 1742년 의궤상의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사직단이 정비되면서 그 부속건물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밖에 『사직서의궐』상에는 국조오례의 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사진 121 남관왕묘 어막대 상부(사진 아래)(출처 : 『동묘의 건축』)



사진 122 남관왕묘 어막대 계단 상세(출처 : 『동묘의 건축』)

바로 어막대와 사직대문입니다. 어막대는 건물형태로 지어진 것은 아니었고 사직 제사 거행시 어막을 설치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해 둔 것이었습니다. 사직 친제시 국왕의 동선은 단유의 서문으로 출입하여 판위로 나아가게 되었으므로 어막대 역시 단유의 서쪽에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직단의 모습은 대한제국에서 한차례 크게 변화하였는데, 바로 단의 크기를 황제국의 격에 맞추어 2배로 늘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이 역사적 종언을 고하면서 사직도 역시 대다수의 건물이 헐리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사직단 복원지역에서> 5분

-사직의 미래-

1911년 사직단을 인계받은 조선총독부는 제사를 중단하였고 정원과 산책로가 있는 사직공원을 개장하였습니다. 공원에 거지와 부랑아들이 몰려들어 구세군이 먹거리를 나누어주었다는 기록이 있고 해방 후에는 고아들을 위한 소년보호소와 서울시립아동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사직단의 본격적인 훼손은 60년대 이후에 일어났는데 사직로 확장과 터널 개통(1967)으로 부지가 분할되고 정문을 두 번이나 옮겨야 했습니다. 60년대에 단군성전과 울곡과 신사임당 동상, 파라다이스 수영장이 들어섰습니다. 그 터에는 또한 다양한 배움터가 자리를 잡았는데 1895년 고종의 소학교령에 따라 세워진 매동초등학교가 1933년에 이전해 왔고, 1920년 조선인이 세운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경성도서관이 1968년에 옮겨왔으며, 1979년 국내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인 서울시립어린이도서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린 근현대시기 사직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가 무엇이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사직의 미래입니다. 현재 사직단은 보존과 개발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해설을 시작하며 두 개의 선택지를 여러분께 제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고 향후의 고민을 한번쯤은 해보는 것이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시민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부분과 그 안에 가려진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문화숨결 궁궐길라잡이는 매주 일요일 5대 궁궐과 종묘 그리고 사직단에서 해설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함께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